

“워너원 출연 결정 후 대박 느낌 들었어요”

tvN ‘SNL코리아9’ 권성욱 PD

방청 신청 만 9만명 ... 열기 뜨거워

“멤버 모두 예능감·매력 넘쳐”

“저 역시 현장에서 팬들 함성에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워너원 멤버들이 나오는 순간 방청객 250명이 이상을 일더라고요. (웃음)”

tvN ‘SNL코리아9’를 연출하는 권성욱(40·사진) PD는 이번과 같은 현장 열기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가장 ‘핫’한 그룹 워너원의 출연에 9만 명이 방청을 신청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 덕분에 지난 12일 방송한 1편부터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2.6%로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지상과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장기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9번째 시즌을 맞은 ‘SNL’의 꾸준한 선전은 코미디계에 반가운 일이다. 시즌5부터 ‘SNL’을 이끌어오면서 최근 워너원 편을 성공시킨 권 PD를 최근 서울 삼암동에서 만났다. 권 PD는 “워너원 편은 사전 미팅 때부터 ‘대박’을 예감했다”며 “신인이고 연기 경험도 별로 없을 텐데 팀워크가 워낙 좋고 아이디어도 넘쳤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서로의 장점을 짚어주고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시에는 쑥스러워하지 않고 연기를 척척 해내고요. 특히 윤지성은 ‘SNL’을 평소 많이 봤는지 아이디어가 많고 예능감이 좋더라고요. 연기를 잘한 친구는 황민현·용성우요. 강다니엘도 ‘센터’답게 매력 넘쳤어요. 다니엘은 ‘아름다운 그대에게’ 코너를 1차 공연 때 완벽하게 해내서 2차 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본인이 더 살려보고 싶다며 재촬영을 요청해서 다시 찍기도 했죠. 욕심이 많던데, 크루로도 초대하고 싶네요. 어때요, 다니엘? (웃음)”

그는 그러면서 “이제 갓 시작한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또 다른 에너지를 선물 받았다”며 “그 에너지가 앞으로 ‘SNL’이 지향하려는 방향과도 맞아 떨어졌다. 워너원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시즌1부터 시즌9까지 줄곧 생방송 방식을 유지해오던 ‘SNL’은 지난달 22일 레드벨벳 편을 시작으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PD는 “시청자에게 더 큰 웃음을 주기 위한 고

민의 결과물”이라며 “원래 프리뷰 공연을 하고, 2차 공연을 했는데 프리뷰 공연에서 더 좋은 장면이 나올 때가 많았다. 생방송에서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지만 녹화 방송은 특유의 B급 유머를 다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스트들도 생방송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녹화 방송은 편질할 수 있으니 다 내려놓고 연기하더라고요. 물론 제작진은 힘듭니다. 예전에는 생방송 끝나면 바로 (신)동엽 형과 맥주 마시러 갔는데 요새는 편집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동엽 형이 크루들만 데리고 호프집에 가더라고요. (웃음)”

“SNL’은 ‘19금 코미디’의 대명사였지만 15세 이상 관람가로 수위를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시청자의 평은 엇갈린다.

권 PD는 “때가 오면 다시 ‘19금’으로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19금’을 한다고 해서 시청률이 더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시청률은 과거 ‘19금’을 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높아요. 대중성을 찾은 거죠. ‘19금’ 방송 때는 대신 온라인 클립 영상 조회 수가 엄청 높아요. 가족과 같이 보기는 민망하니 혼자 찾아보는 게 아닐까요? 최근에 가수 흥진영 씨가 호스트로 나와서 오랜만에 ‘섹드립’(섹시함을 부각한 애드리브)을 많이 시도했는데 시청률보다는 영상 조회 수가 폭발적이더라고요.”

권 PD는 오래 호흡한 신동엽과 크루들에 대한 애

정도 표현했다.

“동엽 형은 ‘SNL’의 수장이지요. 옛날에는 콩트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SNL’에만 남아있잖아요. 동엽 형은 과거 콩트의 최고 전성기에 활약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라도 많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죠. ‘저러니 항상 최고구나’ 느껴요.”

최근 JTBC 드라마 ‘폼워킹의 그녀’로 전성기를 맞은 정상훈에 대해서는 “‘SNL’ 현장에서도 연기에 몰이 오면 게 느껴진다.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와 동시간대 방송하는 ‘폼워킹’을 패러디한 것도 상훈 형을 응원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살남자’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패러디한 ‘정오니’ 캐릭터로 호평받는 김준현에 대해서는 “‘살남자’는 방탄소년단 ‘살남자’ 노래가 준연이와 잘 맞아떨어졌다”며 “방탄소년단 팬들이 처음에는 회의하다 최근에는 재밌다고 응원해준다”고 웃었다.

‘SNL’은 본 고장인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다. 권 PD는 한국 ‘SNL’의 특징을 ‘B급 코드와 트렌드 지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사람들을 웃기기가 쉽지 않아요. 코미디를 코미디로만 보지 않고 정치·사회적인 것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도 나기 쉽죠. 화제가 되는 이슈도 빨리빨리 따라가 줘야 하고요. 거기에 B급 정서를 더했을 때 터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 합니다.”

연합뉴스



‘레드벨벳’ 첫 콘서트 “서머 킨 될래요”

“빨간 맛’ 무대가 신나요.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여서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서머 킨’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올여름을 조용히 강타한 노래는 걸그룹 레드벨벳(사진)의 ‘빨간 맛’이다. 지난 7월 9일 공개해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고, 한 달 넘게 각종 차트 10위권에 진입해 ‘통런’ 중이다. 삼류 발랄한 매력의 멤버들이 제 옷을 입은 듯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노래를 듣고 나와 사랑받았다.

레드벨벳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콘서트 ‘레드 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빨간 맛’의 흥행에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멤버 예리는 “걱정을 안 하는 활동이 없어 ‘빨간 맛’도 처음 나왔을 때 걱정했다”며 “하지만 팬들이 응원해주 자신감을 얻어 열심히 활동했는데 음원이 흥행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빨간 맛’의 인기로 힘입어 2014년 8월 데뷔 이래 3년 만에 첫 콘서트를 열게 됐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공연은 당초 2회로 예정됐지만 전석 매진돼 1회가 추가됐다.

멤버들은 “다섯 명이 오랜 시간 꾸민 온

공연을 열게 돼 첫날 울었다”며 “팬들을 음악 방송에서만 만나다가 콘서트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 눈물이 났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무대에 선 순간 연습생 시절 생각나 그만 감동에 눈물이 났다”며 “이렇게 전력을 다해 연습한 기분이 오랜만 이었고 열정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멤버 슬기는 3년간의 활동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자 “한 순간을 끔찍이 어렵다”며 “뭔가 처음일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지금은 콘서트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공연에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선배들이 찾아 응원했다.

“소녀시대 태연, 윤아, 효연 선배님이 오셨다”며 “늘 우리가 객석에 있었고 무대에 있는 선배님을 봤다. 이번에는 객석에 있는 선배님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정말 원인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3일간 총 1만1천명 규모로 진행된 공연에서 데뷔곡 ‘행복’을 비롯해 ‘아이스 크림 케이크’, ‘덤덤’(Dumb Dumb), ‘7월 7일’, ‘러시안 룰렛’, ‘루키’(Rookie), ‘빨간 맛’ 등의 대표곡을 들려줬다. /연합뉴스

‘우리말 겨루기’ 오늘 트로트 가수 특집

KBS 1TV ‘우리말 겨루기’는 21일 오후 7시35분 트로트 가수 특집을 방송한다.

가수 문희옥, 배일호, 진성, 금잔디가 출연해 ‘우리말 명예 달인’을 놓고 우리말 실력을 겨룬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이들은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며 흥을 돋우기도 했다.

데뷔 30주년을 맞은 문희옥은 ‘이봐요’와 ‘사랑의 거리’를 불렀고, 금잔디는 팬클럽

‘잔디랑’ 회원들의 응원과 함께 ‘오버너비’를 축하공연으로 선보였다. 건강 문제로 지난해 가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복귀한 진성은 ‘안동역에서’와 ‘보릿고개’ 무대를 펼쳤다. 또 배일호는 자신이 KBS FD 출신임을 밝히며 ‘우리말 겨루기’에서 꼭 우리말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람, 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숨터 (재)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 (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1	00 넷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팔도발상 스페셜		10 헬로킴지 이하! 동물탐험대 2 55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회	55 닥터 365
2	00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토론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00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토론회
3	30 101세의 프로젝트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지오메카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토크서터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리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자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왕은 사랑한다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선다큐 2차 대전 비사, 히틀러의 원자폭탄 개발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살스 (재)	35 비바리 크리그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때루 맞이해〉 - 일가의 맛을 찾아서)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파리고추볶음과 파프리카생국) 11:20 세계테마기행 - 마루의 어드벤처 (한여름의 축제, 스벤보르)(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IDF 2017 (저스트 키즈 : 제세르와 사랑수수) 12:30 EIDF 2017 (태아)	14:40 EIDF 2017 (부르카 복사) (와이 우먼) 16:10 EIDF 2017 (와이 우먼)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 - 맨날의 파노라마 피리코관)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 집으로 가는 길) 21:50 EIDF 2017 (우리 사랑 이야기) 23:15 EIDF 2017 (라스트맨 인 알레포) 24:05 EIDF 2017 (인 타임 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1일 (음 6월 30일 庚辰)	
子	48년생 아자 하면 당히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60년생 지금 놓친다면 근린한 지경에 이르러라. 72년생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84년생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주도면 말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4, 60	午	42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기라아이다. 54년생 이면에 가려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66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하는 시점이다. 78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90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연원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4, 27
丑	49년생 도모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마련이다. 61년생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에 대한 고찰이 긴요하다. 73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85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행운의 숫자 : 38, 47	未	43년생 오래 갈 인연이 아니다. 55년생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67년생 처음에는 거칠더라도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79년생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91년생 지금 확산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70, 77
寅	50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62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이다. 74년생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행하다보면 실속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 86년생 파격적인 형태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31, 26	申	44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56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68년생 불가피한 상황이니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80년생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6, 95
卯	51년생 손쉬움이나 잘 실패야 하느니라. 63년생 점점 좋은 조건으로 변해가는 성국이다. 75년생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니 각계의 현상에 주목하라. 87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친다. 행운의 숫자 : 09, 63	酉	45년생 단처럼 잘 잡아내면 단진전을 보이리라. 57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9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1년생 똑 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80, 57
辰	52년생 우회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전도양양하므로 작금의 현황이 미진하더라도 이미 이룬 셈이다. 76년생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즐기는 양상이다. 88년생 빈 곳을 메우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4, 26	戌	46년생 고목이 봄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58년생 깊은 인연이니 중히 여기는 것이 깊은을 부른다. 70년생 세월을 두고 누적되어 온 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다. 82년생 길상이 깨끗하면 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58, 45
巳	53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65년생 애석하리라. 77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 89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62, 14	亥	47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83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17